

2024
고1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화법과 작문 |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활동지]

◦ 활동 1: 1970년대 소설인 「자전거 도둑」을 읽고, 아래의 주제로 **독서 토론**(가)에 해당함.)을 해 보자.

[주제] 자전거를 들고 간 수남의 행동은 정당한가?

◦ 활동 2: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나)에 해당함.)을 써 보자.

(가)

지현(독서 토론의 사회자): 먼저 소설의 상황에 대해 말해 볼게. [바람이 세계 부는 어느 날, 수남은 배달을 갔어.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한 신사가 수남에게 너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자신의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고 말했지. 신사는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찾아 보상금을 요구해. 신사는 보상할 때까지 자전거를 묶어 두겠다고 하고 떠나버리는데 수남은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 소설 「자전거 도둑」의 내용) **과연 수남의 행동은 정당할까?**(토론의 주제, 이 문단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묻는 문제로, 소설의 내용과 토론의 주제를 소개한다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민준**: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봐.(책임 여부에 대한 '민준'의 주장)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져 흠집이 난 거잖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 수남이 피해를 보상할 책임은 없어.**(주장에 대한 근거)

하연: 하지만 **바람이 세계 불었다면 수남이 자전거를 잘 묶었어야 해.**(책임 여부에 대한 '민준'의 주장에 대한 '하연'의 반박) 자전거가 쓰러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니 **자전거를 관리하지 않은 수남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책임 여부에 대한 '하연'의 주장) ([]: '민준'의 주장과 이에 대한 '하연'의 반박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현: 둘의 입장이 다르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소설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요청함.)

민준: '**바람이 유난해서**'라는 구절이 나오니(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근거, **소설의 구절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전거가 쓰러질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소설에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

하연: **바람이 유난해서 수남이 배달할 물건을 꼼꼼하게 묶는 장면**(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민준'의 주장을 반박함.)이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지. 그런데도 자전거는 잘 안 묶어 두었잖아.

지현: [정리하면, 민준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니까 수남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고, 하연은 수남이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가 없었기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구나.]([]: 토론자들이 언급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함.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연: 그래, 맞아.

지현: [그러면 수남의 **책임 여부**(토론의 쟁점 ①) 말고 다른 쟁점은 없을까?]([]: 토론자들이 다른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유도함.)

하연: 보상에 대한 **합의 여부**(토론의 쟁점 ②, **토론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를 구분해 알아두어야 합니다.**)로도 행동이 정당인지 판단해 볼 수 있어. **합의가 이뤄졌는데 수남이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간 건 정당하지 않아.**(합의 여부에 대한 '하연'의 주장)

민준: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야. 신사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수남이 동의하기 전에 가 버렸잖아. 일방적으로 제**

안하고 있는데 합의라고 볼 수 없지.(합의 여부에 대한 '민준'의 주장) 그렇기 때문에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간 건 문제가 없어.

하연: 일방적 제안은 아닌 거 같아. [신사는 수남이 울어서 보상금을 반으로 줄여 주잖아. 그리고 수남이 잘못했다는 대답도 해. 신사는 수남의 처지를 고려해 줬고, 수남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합의가 이뤄진 거야.

[[]: 합의 여부와 관련한 '민준'의 주장에 대한 하연의 반박, 어떤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준: 신사가 수남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유한 어른이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일부러 찾아서 배달원 소년에게 5천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 큰돈을 요구했어.(1970년대 기준으로 돈의 액수를 이해해야 함.)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매정한 행동이야.(‘하연’의 주장에 일반적인 상식을 들어 반박함.)

지현: 같은 소설을 읽고도 상황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독서 토론의 주제로 ‘활동 2’(‘하연’이 작성한 초고, (나)에 해당함.)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나)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수남은 신사의 자동차에 난 흠집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바람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토론에서 언급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함. (가)의 독서 토론과 연관 지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다. 수남은 배달 물건을 꼼꼼하게 묶었지만, 자전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실제로 태풍에 의해 주택 유리창이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예보를 듣고도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주택 소유자가 그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함.)

▶ 수남의 행동의 책임 여부에 대한 ‘하연’의 주장

다음으로 신사와 수남은 보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떠났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언급함.) 신사는 수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줄여 주었다. 또한 수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함.)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1970년대 배달원 소년의 입장에서 5천 원이 큰돈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당시 시대 기준으로 돈의 액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 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수남은 신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떤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수남과 신사의 합의 여부에 대한 ‘하연’의 주장

수남은 도둑이 되어 버렸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합의된 것도 수행하지 않았다.**(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둑’은 아 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자전거를 자신이 훔친 수남인 것이다.(토론에서 내세운 주장을 바탕으로 제목에 담긴 의미를 밝힘.)

▶ 「자전거 도둑」의 제목에 담긴 의미